

일동면 1호공원 기산어린이 공원 탄생

총 1천700㎡ 면적에 총사업비 10억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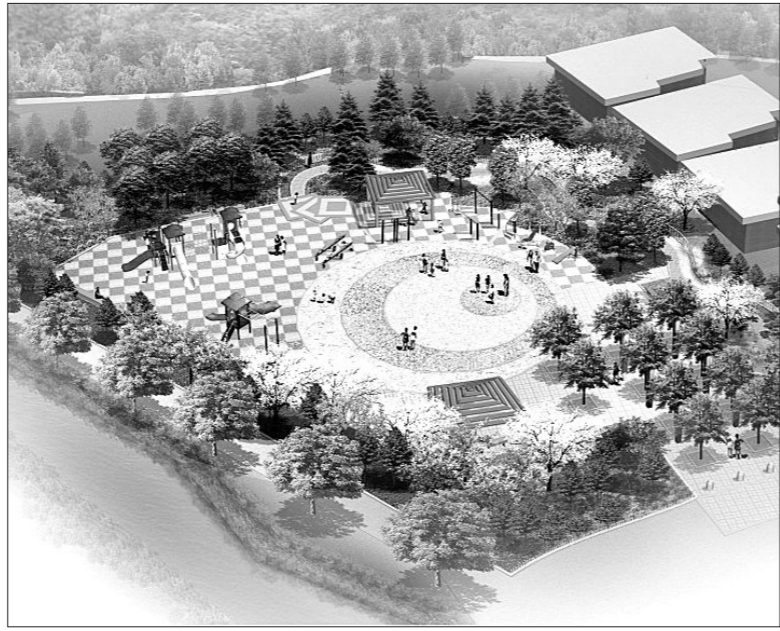
포천시 일동면 주거밀집지역인 기산리 96-119번지에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산어린이 공원이 탄생된다.

기산어린이 공원은 파고라가 설치된 진입광장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중앙광장, 그물놀이와 다양한 조형놀이대 및 고무매트 등이 설치된 놀이광장, 노인들을 위한 산책로 및 건강강압보도 등 체육시설이 설치된 건강광장 등 4개의 테마를 갖춘 광장으로 조성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홍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기산어린이 공원 조성공사는 총 1천700㎡의 면적에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자됐다.

이 공원은 일동시내에 최초로 조성되는 1호 공원으로 열악한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동초등학교가 인근에 있고 주거밀집지역에 자리해 있는 등 접근성이 양호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부터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천시 일동면 주거밀집지역인 기산리 96-119번지에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산어린이 공원이 탄생된다.(기산어린이 공원 조감도)

배움의 향기 노인대학 입학식

포천시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

포천시는 노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운영되는 노인대학이 3월을 맞이하여 일제히 입학식을 개최했다.

3월 소홀노인대학을 시작으로 일

동노인대학이 입학식을 개최했고 포천노인대학, 영북노인대학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포천시의 노인대학 4개소는 4천9백만원의 예산을 포천시로부터 지원 받아 운영되며 대학별로 10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하여 교양 및 건강교육, 노인여가프로그램운영, 현장학습 등을 통해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령사회를 맞이해 스스로 배움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 및 건전한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학생회장 선거



조은혜 학생회장지원부단장
유암초 5년

정말로 리더십이 강하고, 학교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있다면.....

30년 전에 우리 엄마 학창시절에는 말처럼 뛰고 소처럼 일했다는 후보와 학교생활과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후보가 있었는데, 540명의 학생들은 학교 생활과 안전에 표를 주었고, 그 후보가 성장해서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다고 하겠다.

또 TV 어린이 선거에서는 학교와 학생을 위해 절레가 되고, 미화원이 되겠다는 공약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마음이 떨리는 기쁨으로 후회 없는 결정적인 한표를 주었다는 미담이 전해졌다.

자기 소신에 맞는 운동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있었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표정과 언행으로 남의 흥을 보고, 허물을 지적하고, 소리 소리 지르며 기싸움까지 하는 성숙하지 못한 후보들의 모습을 보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해야 하나?

도대체 명에 무엇이길래.....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를 것이 전혀 없나보다.

투표하는 모두의 마음이 학교의 일꾼이며 나라의 기둥이라는 생각을 재버리지 말고, 아무리 작은 공약이라도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킬 줄 아는 그런 후보자가 당선되었으면 한다.

만약에 내가 회장이 된다면 학교 지킴이가 사명이 아닐까도 생각해 본다.

지금도 꽃바람과 봄바람은 계속 불고 있는데...

종교인들의 세금면책 당연한가

최근에 '뉴스 후(mbc)'에서 다 루어진 종교인들의 호화생활은 방탕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 측에서는 "종교인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세금납부는 당연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종교인에게 세금을 씬하라는 건 영적 가치를 세속적인 가치로 강등시키려는 몰이해"라는 주장으로 팽팽한 접전이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의 키워드는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노동과 봉사의 가름에 있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노동에 가깝다. 이유인즉 종교단체가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두고 종교계에 받을 돈지도, 활동하지도 않지만 이들 역시 자단체의 운영이나 생계를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하며 어떠한 명분에서든 소득을 취득한다. 때문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이들 소득에 비례하는 세금을 청구함이 정당하다고 본다.

종교인들은 이에 대해서도 노

동이 아닌 봉사활동 중에 획득되는 확률적 기부금이라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봉사가 매주 꼬박꼬박 작게는 수백에서 수억까지 돈을 받느냐 말이다.

물론 지금 우리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떠한 측면에서는 국가 못지 않은 복지로서 이 사회의 안녕에 적지 않은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대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로 대신 되거나 보상될 수는 없다.

봉사의 정의를 보면 '국가 사회 또는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함'이라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신적으로 일함에 자신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교회를 예로 들면 목사는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 그 생계비를 교회에서 받는 월급으로 해결한다.

이를 보고도 노동자의 월급과 다를 바 있다고 하겠는가. 정기



김기정 학생회장지원부단장·홍남고 3년

적으로 명백한 소득원이 있기에, 그것이 단지 봉사활동에만 쓰여지지 않는 것이기에 과세부정의 주장은 비합당한 핑계 불과하다.

정리하자면 종교인도 일반적인 국민처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 권리를 이행한다면 이제 그에 합당한 의무를 지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정합을 도모하자면 현재 진행중인 종교법인법을 통해 회계의 투명화를 이루고 국가적 차원에서 영세교회나 재정난의 사할 등의 종교단체에 대해 보조비를 지급함으로써 종교계에 부는 사회의 의혹과 불신을 지우고 종교의 순기능만을 부각시킬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할 때다.

도둑질인가, 창조의 어머니인가

맹세하건데 난 그것이 그렇게 나쁜 짓인 줄 몰랐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심한 꾸중을 들었다.

3학년용 마치고 우리 가족은 부천에서 포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정들었던 친구들, 그리고 나에게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쓴다고 만날 때마다 칭찬하는 이웃 어른들과 헤어지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 어른들께 사랑을 담은 편지를 쓰고 싶었다. 나를 인정 해 주시고 대단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니 꼭 좋은 글을 써서 자랑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좋은 글이 머릿에서 떠오르지 않아서 인터넷의 다른 사람의 미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더니 가나다라.....파하를 가지고 운을 떼어 사람의 말을 만든 것이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네 내 마음과 같아서 그 글을 베껴 편지를 썼다.

내 편지를 받으신 아주머니께서는 우리 부모님께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써요, 정말 대단해요" 하고 칭찬하셨다. 그때서야 편지를 보신 부모님께서는 집으로 돌아와 꾸중을 하신 것이다.

"그 글 누가 쓴 거야?"

"제가 쓴 건데요." "아빠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조사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실대로 말씀 드렸더니 아빠께서 꾸중을 시작하신 것이다. 저작권이란 단어도 그 때 처음 알았다. 난 내가 왜 아빠께 꾸중을 들어야 하

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빠께서는 "그 글들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되어있지 않은 글이 쓴 글을 몰래 퍼와서 자기 글인 것처럼 쓰는 것은 물론 도둑질보다 더 나빠. 왜 몰라야?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예술적 문학작품 정신적인 노력의 재산들을 다른 사람들이 마치 자기 것인 듯 마구 베껴서 사용한다면,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그려거나 쓰는 사람들의 재산을 도둑질로 손해를 입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의욕을 잃을 것 아니겠나? 그러나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너처럼 남이 써 놓은 좋은 글이 어디 있나? 하며 겁쟁이나 하고 있으면 창조의 영영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평생 글 도둑질 하고 살래? 지금 알았으니 다행이지 네가 모르고 남이 쓴 글이나 그림을 내 작품인 척 퍼들린다면 너는 감옥에 가던지 많은 벌금을 내야 하는 거야" 하셨다.

그 후에 생활 하면서 느낀 건데 아빠의 말씀이 옳은 것 같다. 내 글을 쓰고 그림 그리는 것이 좋다. 가끔 교실 뒤에 내 그림이 붙어 있기도 한다. 그런데 그림 그리는 시간이 되면 몇몇 친구들은 뒤에 붙어있는 내 그림을 보고 그린다. 그럼 생각하면 서 그리노라고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내 그림보다 보고그린 다른 친구들의 그림이 더 잘 그린 것 같아 보인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화난다고 말씀드렸더니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



이지연 학생회장지원부단장·포천초 5년

못 들어 보았어? 너희들은 전문 화가가 아니고 배우는 과정이니까 화 내지마" 하셨다.

나에게는 도둑질보다 더 나쁘다고 소리소리 치시면서 화내시더니 친구들이 그림 베껴는 것은 괜찮다고 하시니,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부터 내가 그림을 더 잘 그려야지' 하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에이, 다음부터 그림 안 그려' 하고 생각 된다는 것이다. 내가 이 정도니 전문 화가나 작가들은 더욱더 작품에 대한 의욕을 잃을 것 같다.

우리나라,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의 창의적인 정신세계를 위해서라도 남의 그림을 똑같이 모방하여 그리거나, 남의 글을 내 글인 듯이 몰래 베껴서 창작하는 작가나 화가들의 의욕을 짓밟지 말아야겠다.

아빠께 꾸중을 들은 후 나는 소원이 생겼다. 언젠가는 이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좋은 글을 쓰는 것이다. 그 소원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며칠 전 TV에서 제자의 논문을 베껴 써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수님을 봤다. 그 교수님에게는 우리 아빠와 같은 아빠가 없었나 보다.

유암초 전교회장 선거



권정아 학생회장지원부단장
유암초 5년

고 했는데 한 팀이 출마하면 투표할 필요가 없으니 나도 한번 나가겠다.

근데 이렇게 뜻 깊은 일이! 내가 전교회장이 됐다. 작년에는 우리 언니가 전교회장이었는데 이제 내가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다.

유암초 전교회장, 부회장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정말 억울했을 것 같다. 우리학교를 위해 정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전교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유암초등학교는 3월14일 전교회장과 부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규모가 몇 배로 작아서 후보자들이 많이 출마하지 않는다. 처음엔 나도 출마하지 않으려

포천초등학교 전교 임원 선거

3월20일 전교 어린이 회장 선출 위해

포천초등학교(교장 임 중수)는 3월14일 날 각 반에서 학급 임원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뽑았다. 5학년 8학급과 6학년 7학급의 회장으로 뽑힌 어린이는 3월20일 넓은 운동장에서 실시하는 전교 어린이 임원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포천초등학교는 모든 어린이들이 선거에 참가하는 직접선거를 실시하는데, 학교에서는 선거를 며칠 앞두고 선거관리 위

원회를 만들어 교육을 시키는 등 선거 준비를 하고 있으며 후보에 등록한 어린이들은 자기의 이름을 이용해 삼행시를 지어 알리는 등 홍보지를 돌리며 선거운동에 한창이다.

전교 어린이들이 직접 뽑는 임원이니만큼 학교와 학교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발 빠르게 일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지연 학생회장지원부단장·포천초 5년

함께 공부해요

위의지칙(威儀之則) ㉔

少儀에日不窺密하며不旁狎하며不道舊故하며不戲色하며毋拔來하며毋報往하며毋毒神하며毋循枉하며毋測未至하며毋자衣服成器하며毋身質言語니라 (뽕혈뜯을자 瀆도랑독 말 무)

소의(少儀)에 말하기를 "남의 은밀한 데를 엿보지 말며 남과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 말며 옛 친구의 잘못을 말하지 말며 희롱하는 낯빛을 짓지 말아야 한다. 급하게 오지도 말고 급하게 가지도 말아야 한다. 신을 오독 하지 말며, 잘못된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며 아직 닦쳐보지 못한 일을 억측하지

말아야 한다. 의복과 이미 이루어진 기물을 나무라지 말며 의문이 있는 말은 자신이 바로잡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양주승 본지 지만원외교관



운동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수와셈

7. < 대화 > : (3)

* 얼마나 걸리나요?

하우롱 윌비테이큰?

<How long will be taken?>

* 13 시간 정도 걸립니다

잇텍서바웃 펠티인어위스

<It takes about thirteen hours.>

* 어, 벌써 6시 되어가네

어, 잇설리리 개링씩서클락

<It's already getting six O'clock.>

* 서둘러야겠어요

유숀 허위업

<You should hurry up.>

* 회의가 몇시에요?

햇타임 우일해버더미링?

<What time we'll have the meeting?>

* 10시에, 5층에서.

엇 테엔, 온더웁스홀로어

<At ten, on the 5th floor.>

심리상담 ㉑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도 문제인가요? ㉒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들은 쉬운 시간이나 자유시간에 멀리서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거나, 창밖을 보거나, 개인물건을 가지고 놀며,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주로 혼자 지내며, 유치원 활동이나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까불고 산만하고 번잡스러운 눈에 띄는 행동만을 문제시하며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아이들을 '얕한하다', '어른스럽다', '조용하다' 등으로 생각하고 그다지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줍음의 정도가 지나친 아이들은 너무 부끄러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시인들을 잘못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느 과목 어느 수업에서든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두 발휘하고 그것에 알맞게 돌아오는 칭찬이나 다른 보상에 의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자신감의 반복은 아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만들고 어떤 상황이냐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개인적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두 발휘하지 못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 칭찬을 받는 횟수가 적거나 상황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답을 이야기하고 실패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이 실패경험의 반복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만들게 되며 부정적인 평가는 아이가 어떠한 과제를 만났을 때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실

상담문의: 우리
심리상담센터
031-541-0954

유정현
우리심리상담센터
책임연구원